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8호 【루계 제25171호】 주체105(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안정수동지, 조용원동지, 박명순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2014년 12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교복과 신발, 학용품, 가방문제를 당에서 전적으로 맡아 푸시겠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공정을 새로 꾸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방용천생산공정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직접 풀어주시였으며 학생용가방도안들도 몸소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당 부문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로동계급들은 헌신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짧은 기간에 가방용천생산기지를 훌륭히 꾸리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 곳곳마다에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겨진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면서도 당의 의도대로 현대적인 가방용천생산기지를 꾸리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생산한 가방용천을 가지고 만든 여러가지 학생용가방들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의 학생들이 리용할 여러가지 형태의 가방들을 일일이 보시면서 성별과 년령심리적, 신체적특성에 맞게 손색없이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학생용가방들이 볼수록 멋있다고 하시면서 형태와 색갈이 다양할뿐만아니라 편리성, 기능성, 미학성 등 모든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제품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가방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 꾸려진 가방용천생산공정은 완전히 국산화된 생산공정, 당에서 바라는 우리 식 생산공정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고있는 데트론인견실을 가지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유연창대직기와 고온고압로라염색기 등을 가지고 가방용천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는데 생산공정의 국산화실현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능력이 대단히 큰 가방용천생산공정이 꾸려진데 맞게 학생들의 책가방은 물론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질좋고 다양한 형태의 가방들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인견천직장, 직포종합직장, 염색종합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학생교복천을 비롯한 질좋은 옷감과 각종 천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일데 대한 문제, 생산문화, 생활문화 확립사업을 더욱 잘할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을 개선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공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현대적이며 국산화된 가방용천생산기지를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멋있는 가방을 메고 웃고 떠들며 학교로 오고갈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방용천생산공정에 갖추어진 모든 설비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창조적인 지혜와 열정이 깃든 명실공히 우리의것이라고 하시면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한 해당 부문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평양방직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 로동계급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기식의 투쟁방식,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이 바로 자강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고 해도,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부하로 돌아가고있는 공장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 자력갱생의 동음소리는 머지않아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소리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내리는 징벌의 동음소리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며 기적과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이어받아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할수 있게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정책관철의 본보기공장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시대의 벅찬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높은 생산성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인민사랑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는 장군님을 명예지배인으로 모신 로동계급이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아로새겨진 당의 크나큰 믿음의 력사를 돌이켜보며

세멘트가 폭포처럼 쏟아진다.

출하장에서 날마다 쏟아져내리는 세멘트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리는 느끼고있었다. 아니 보고있었다. 조국땅 곳곳에 수풀처럼 일떠서는 발전소의 언제와 공장, 거리들…

단순히 세멘트가 아니다.

백절불굴의 의지로 난관을 맞받아뚫고나가며 한 t의 세멘트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려가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고립과 제재도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필승의 무기로 틀어쥐고나가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있는 한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넘친다.

중앙조종실에 가보아도 좋다. 우람찬 설비들의 동음울리는 현장을 둘러보아도 좋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아안고 심장의 피를 끓이는 미더운 상원땅의 주인들의 장한 모습이 안겨온다.

상원이 또다시 용을 쓰고있는것이다. 명당지구가 불도가니마냥 끓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세멘트증산의 동음이 힘차게 울릴수록 생각도 깊어진다.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시고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생산한 세멘트가 젊음으로 약동하는 이 땅의 방방곡곡에 가닿아 대기념비적창조물이 되고 번영의 굳건한 주추돌이 되여 천리마,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려 아침과 저녁,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위대한 조국번영의 시대를 계속 펼쳐놓을것이다.

우리 장군님 얼마나 바라고바라시던 소원이던가.

우리의 마음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없이 물결친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종업원명부의 첫 페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잊지 못할 그날은 주체73(1984)년초의 어느날이였다.

이날 회의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그렇고 국방건설을 잘하자고 하여도 어디서나 세멘트가 더 요구된다고 하시며 이 문제를 풀수 있는 혁명적인 방도가 없겠는가고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회의장안은 물을 뿌린듯 조용하였다.

우리 장군님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라고 해솟는 룡남산마루에서 누리를 향해 터치시던 력사의 맹세가 다시금 끓어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어려운 과업을 결연히 맡아안으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새로 건설하는 세멘트공장의 지배인은 자신께서 하려 한다고 깊은 의미를 담아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위인의 결심에는 사랑하는 내 조국을 인민의 재부로 꽉 채우실 숭고한 포부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우시려는 높은 리상이 어려있었다.

이 력사의 사명감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와 깊은 정을 맺으시였던것이다.

인류사회의 려명기에 자연의 횡포에 맞선 우리 조상들의 창조의 모습이 잠들어있는 검은모루유적과 더불어 널리 알려진 상원땅,

이곳은 백두산3대장군들께서 함께 오셨던 뜻깊은 고장이기도 하다.

주체38(1949)년 9월 4일이였다.

이날 농민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상원천을 막고 발을 전부 논으로 풀어 논농사를 지을데 대하여서와 마을앞산에 과일나무를 많이 심을데 대하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실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김정숙어머님께 자신께서도 빨리 커서 수령님처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굳게 맹세다지시였다.

바로 인류력사의 그 한 기슭에, 그처럼 사연깊은 위대한 력사의 땅에 우리 장군님의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떠받들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웅장한 자태를 완연히 드러내며 일떠서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왔다. 어느 하루도 평범하게 흘러간적이 없는 이 나날에 기업소의 세멘트생산자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였고 어떤 진리를 체험하였으며 어떻게 살며 투쟁하였는가.

믿음은 충신을 낳는다.

기업소의 력사는 말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력사, 믿음의 력사였다. 력사의 그 나날은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신을 믿고 투쟁할줄 아는 불굴의 인간,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줄 아는 의리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나날이기도 하였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공로가 있는 기업소라고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성국가건설작전도우에 기업소의 생산일보를 함께 놓으시고 언제나 이곳 로동계급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상원땅에 령도자는 로동계급을 굳게 믿고 로동계급은 자기의 령도자를 절대적인 신념으로 받드는 혼연일체의 화폭을 펼쳐놓으시였다.

사람들은 주체83(1994)년 11월 9일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기억할것이다.

이때로 말하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여 세계가 조선에 대하여 제나름대로 억측하며 초점을 모으고있던 시기였다. 그러한 때에 정일봉의 우뢰소리와도 같이 세상을 뒤흔들어놓은 력사적인 창조의 포성에는 어떤 일화가 새겨져있던가.

그 며칠전 현지에서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건설의 전망을 환히 밝혀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지휘를 맡은 한 장령에게 제기될것이 무엇이겠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장령의 시원시원한 대답을 들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멘트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얼마든지 보내줄것이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있으니 세멘트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정녕 자신의 온넋과 진정을 다해 안겨주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떠나 어찌 상원땅에서의 창조와 기적을 말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대한 화제를 꺼내신적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기어이 희망의 봄을 안아오리라는 신념으로 걷고 걸으시던 전선길에서도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이곳 로동계급이 흘리는 땀을 생각하시였고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산악같이 분출되는 발전소언제건설장을 찾으시여서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생각하시였다.

기업소에서 석탄문제는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칫손가락에 꼽히는 난문제였다.

세멘트생산과정을 비유해말할 때 석회석이 쌀이라면 소성로는 가마이고 크링카는 밥이라고도 할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하느라면 세멘트생산에서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쉽게 리해하게 될것이다.

그러한 석탄문제를 풀어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주체90(2001)년 8월 력사적인 외국방문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업소의 생산실태를 알아보시였다.

일군들로부터 석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세멘트생산에서 애로를 느끼고있다는것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담하게 하나의 탄광을 뚝 떼서 기업소에 소속시켜주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믿음과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이곳 로동계급은 불타는 충정과 필승의 신념을 안고 날과 날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새겨왔다.

잊을수 없다.

상원로동계급이 오늘도 잊지 못하는 날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개낀 일요일의 새벽에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신 날도 있고 8월의 무더위속에서 5시간 30분동안이나 귀중한 시간을 바치신 날도 있다. 어찌 이뿐이랴. 하루하루, 분분초초가 천금같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두해도 아니고 근 30년동안이나 한 기업소의 지배인이 해야 할 사업까지 몸소 맡아안으시고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상원천기슭에 나래치는 결사관철의 위훈을 우리 장군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계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멘트를 생산하는 평범한 로동자들을 시대의 기념비를 일떠세운 창조자들의 대렬에 보란듯이 세워주시고 그들과 꼭같이 수도의 이름난 식당들에 마련한 연회석상에도 앉혀주시며 시대를 놀래운 건설자들과 나란히 국가표창수여식에도 불러주신것을 비롯하여 사랑과 영광의 단상에 언제나 이곳 로동계급을 내세워주시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하며 오늘도 울리는 소성로의 동음은 장군님과 상원로동계급사이에 맺어진 혼연일체의 메아리이다.

이곳 사람들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좌우명이 있다.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수령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전사의 신념, 일단 굳어지면 억척이 되는 세멘트처럼 한몸이 그대로 강성국가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고 주추로 굳어져도 한이 없다는 인생관이 바로 상원의 세멘트철학이다.

시간이여, 우리를 따르라. 빨리, 더 빨리!

누구나 다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시간을 앞당겨 질풍같이 내달렸다.

누구나가 다 100m달리기경기에 나선 심정으로 계획수행의 결승선을 향하여 최대속도로 달렸다. 속도를 늦추거나 다리쉼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세멘트는 절세위인들과 상원의 로동계급을 이어주는 피줄기와도 같았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서한을 새겨안는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되여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굳게 믿습니다.

김 정 은

2012.3.28》

강성국가건설의 전초병!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과 믿음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앞으로만 나아가게 힘과 용기를 주고 걸음이 더디여지면 비약하며 날을수 있게 억센 나래를 안겨주는 자력자강의 무한대한 원천이였다.

지금 어디서나 세멘트를 요구하고있다고, 나는 세멘트를 해결해달라는 제기를 받군 하면 먼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생각한다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까지 내가 어느 단위에 세멘트를 보내줄데 대한 과업을 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집행하군 하였다고, 나는 그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있으며 고맙게 생각하고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세멘트를 생산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제때에 보내주고있는 상원의 로동계급이 대견하시여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낌없이 통채로 안겨주고싶은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이였다.

그이의 말씀은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 기업소의 로동계급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박차고 앞으로 힘차게 돌진하게 하였다.

한사람같이 떨쳐나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갔다.

어려울 때 신념의 표대로 바라볼수 있고 지쳐 쓰러졌다가도 의지의 기둥삼아 다시 일어설수 있으며 목숨을 기꺼이 바치고서도 후회하지 않을만 한 생의 믿음이 있다면 인간은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무엇이였던가.

상원의 세멘트생산자들은 흘러온 나날속에서, 힘찬 투쟁속에서 알았다.

그것은 바로 위인의 뜻, 위인의 정, 위인의 숨결이다.

상원의 기적이 여기에 원천을 두고있는것 아니랴.

올해 1월 지난해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의 위훈을 보고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이 평가한다는것을 전달하시오라고 친필서한을 보내주시였다. 며칠후에는 또다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의 명의로 최상의 믿음어린 축하전문을 보내주시는 은정을 베푸시였다.

어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상원의 로동계급에게 사랑과 정을 쏟아부어주시는것인가.

그것은 상원의 로동계급이 흘리는 한방울한방울의 땀, 그들이 생산하는 한g한g의 세멘트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꽃피우는 자양분이 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때문이 아니랴.

상원로동계급의 마음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영생하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이 떠날줄 모른다.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이어놓고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전례없는 세멘트생산성과로 당의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떳떳하게 모실 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명예지배인으로 높이 모신 로동계급이다!

누구에게서나 가슴가득 차넘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은 상원로동계급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주고있다.

그들의 기세는 좋다. 투쟁목표도 뚜렷하다. 올해에도 세멘트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자는것이다.

상원땅에만 울려퍼지는 결사관철의 함성이 아니다.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자.

이것이 이 땅 그 어디서나 세차게 나래치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전사들의 신념과 맹세의 메아리, 불타는 애국충정의 분출이다.

상원로동계급의 투쟁본때로 일해나가자.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이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여!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기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자.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수록 언제나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상원의 로동계급처럼 모든 단위들이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다면 조국땅우에는 영광의 천리길, 만리길만이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을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을 언제나 심장에 쪼아박고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과 본때를 다시한번 남김없이 떨쳐 당의 위업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이 되고 사회주의문명국의 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주추돌이 되자.

모두다 새 기록, 새 기적을 창조하여 당 제7차대회를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

본사기자 김철혁

인민들이 즐겨찾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경공업제품을!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찾아쥐고 완강하게

경공업성 일군들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책략적으로 세워 인민소비품생산을 활기있게,

—명제품, 명상품을 내놓아 12월15일품질메달을 쟁취하는 제품들을 늘이게 하자.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목표와 수행방도를 세우면서 경공업성 일군들이 찾은 올해의 중심고리이다. 하다면 올해 정초부터 경공업성 일군들은 경제사업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건이 불리하고 애로가 많을수록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를 정확히 찾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 혁명의 유능한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구절구절 심장에 새기면서 성의 일군들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을 담당한 경제지도일군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더욱 깊이 자각하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꽃피워나가시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깊이 심장속에 쪼아박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올해 경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한조항한조항 새길수록 당 제7차대회로 향한 성의 투쟁방향과 방도가 환히 열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신년사에서 그들은 올해 자기들의 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중심고리를 찾아쥐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 이것이 성에서 세운 첫째가는 중심고리이다. 성에서는 현대화이자 곧 국산화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대상선정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올해에 류원신발공장 현대화를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였다. 건물공사로부터 수십대의 신발생산설비보장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해결해나가기 위한데 중심을 두고 공장의 기술자들과 함께 이 부문 과학자들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도록 하였다. 혜산신발공장의 이색사출기능력확장공사와 신의주방적기계공장의 바늘로라 베아링생산공정현대화, 강계편직공장의 염색공정현대화 등 중요경공업공장들의 생산공정현대화실현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참신하게 해나가고있다. 성아래 관리국들에서 기술준비소의 력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의 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따라세워 생산을 활성화하려는것은 경공업성 일군들이 틀어쥔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성에서는 성과 관리국 해당 부서들에서 풀어줄 기본원자재항목과 월별, 분기별보장대책,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자체로 해결할 원자재항목들을 깐깐히 타산하고 제때에 원만히 대주어 생산활성화의 길을 힘있게 열어나가기 위한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기백있게 내밀고있다.

년초부터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을 환히 꿰들고 성 일군들은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내려간 성과 방직공업관리국 일군들은 현장의 로동계급과 한덩어리가 되여 생산에서 걸린 고리들을 앞질러 풀어나가면서 교복천생산을 활기있게 내밀고있다.

오늘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견방종합직장, 염색종합직장을 비롯한 들끓는 전투장들에서 질좋은 교복천을 더 많이 짜내기 위하여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이 벅찬 진군의 앞장에는 인민의 참된 충복,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가는 성 일군들과 공장일군들이 서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내놓으려는것은 올해 경공업성에서 틀어쥔 중심고리의 다른 하나이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경공업부문에서는 품질관리의 과학화수준이 높아지고 제품의 질적수준도 현저히 올라갔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당당한 명제품, 명상품이라고 소리칠수 있는 소비품수준에 올라서자면 품질관리와 질제고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성에서는 지난 한해사업을 총화하면서 이 점에서 특별히 교훈을 찾고 분발해나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산구두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인 과업을 자기 단위에 주신 과업으로 간주하고 성아래 모든 경공업공장들에서 분발해나서도록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고있다. 성안의 과학기술을 담당한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고 그들이 책략적으로 전망성있게 이 사업을 내밀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고있다. 현재 아래단위들에서 명제품, 명상품으로 내놓을수 있는 제품의 품종수를 정확히 확정하도록 하는 한편 전시회와 품평회, 기술협의회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꾸준히 내밀도록 하였다. 12월15일품질메달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부문별, 공장별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전투적구호를 심장속에 새긴 성의 모든 일군들이 년초부터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으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친 국방공업부문 과학자들과 일군들처럼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 드높은 열의로 신들메를 바싹 조이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고있다.

본사기자 명홍숙

명제품, 명상품을 더 많이

온 나라 경공업공장들이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원산구두공장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은정속에 우리 나라 신발공장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 명도업적단위들중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이 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우리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모든것은 세계최고의 수준이여야 한다는것이 당의 요구라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담력과 배짱을 안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첫 12월15일품질메달을 쟁취한 대동강식료공장에서 지난해 12월 또다시 명제품을 내놓아 두번째로 메달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였다. 그뿐이 아니다. 인민들이 즐겨찾고 그들이 실지 덕을 보는 선흥식료공장과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의 여러가지 당과류들과 고려약을 비롯한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늘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명제품, 명상품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는 제품을 말한다. 인민들이 즐겨찾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은 례외없이 질이 가장 높은 최우수제품들로 인정받고있으며 국제적인 품질인증뿐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대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있는 제품들인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담력과 배짱을 안고 명제품, 명상품생산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세계를 향하여 돌진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상관점과 일본새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한가지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와 당당히 겨룰수 있게 최상의 수준에서 내놓을것을 요구하고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완전성공시킨 영용한 국방공업부문 과학자, 로동계급처럼 자기들이 만든 제품 하나하나를 세계에 소리치며 자랑할수 있게, 조국과 인민앞에 떳떳이 내놓을수 있게 하겠다는 야심만만한 자존심을 가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명상품, 명제품생산이자 곧 현대화이고 국산화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제품의 질제고와 품질관리의 과학화를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비약의 룡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오늘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실력있는 인재로 준비되면 어디서나 세상을 놀래우는 일을 해낼수 있으며 명제품, 명상품의 발명가, 생산자로 자랑떨칠수 있다.

이 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만들어내는것이 애국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실천에서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더 빨리, 더 높이 비약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질경쟁을 드세차게 벌리는것은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은 어떤 특정한 단위나 사람들만이 생산할수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 그가 누구이든 인민이 요구하고 그들이 평가하는 제품을 내놓겠다는 불타는 열의밑에 그 개발사업에 뛰여들뿐아니라 그것이 생산활성화에로 이어지게 끊임없는 질경쟁, 기술경쟁을 벌려나감으로써 온 나라에 명제품, 명상품들이 차넘치게 해야 한다.

평성대성편직공장에서

질제고를 첫자리에 놓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평성대성편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올해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내부예비와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질좋은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가고있다.

라명순, 김영철동무들을 비롯한 공장일군들은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면서 자재보장을 앞세우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당일군들은 방송선전과 전투속보발간을 기동성있게 진행하고 사회주의증산경쟁도표를 게시하여 로동자들의 앙양된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년초부터 전력이 긴장한 조건에 맞게 기술자들을 발동하여 전열기에 의한 세타열처리공정을 쓰지 않고 무동력증기보이라를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리하여 자체로 종전의 무동력증기보이라의 화실온도를 높이고 물판의 수를 늘여 세타열처리와 피복제품다림을 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적은 전기를 가지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기술지도를 짜고들어 생산능률과 제품의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는데서 언제나 앞서나가고있는 제직2작업반에서는 기술부원 오세광동무가 창안한 제직공정에서의 자동단짜기지구를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종전에 비하여 4배로 높이고있다.

가공2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대관리를 알뜰하게 하고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생산실적을 1.5배로 끌어올리고있다.

재봉2작업반의 로동자들도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모든 생산공정들이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매일 계획을 2배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생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사리원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평양학용품공장에서 수도의 학생들에게 질좋은 학용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심장에 새겨안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 들어와 보다 높은 투쟁목표를 내세우고 새해 첫 전투부터 학용품생산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더 잘 받들어나가자면 우리가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학생들의 심리적특성과 높아가는 질적수요에 맞게 새 제품개발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고 뜨겁게 호소하면서 이를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잘하는 한편 기술학습의 날 운영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특성에 맞게 잘 조직하고있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을 위한 현상모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내놓은 로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통하여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공장에서 생산한 지우개, 크레용 등 학용품의 질적수준이 현저히 높아질수 있은것은 철저히 학생들의 요구를 질적기준으로 정하고 새 제품개발사업을 활발히 벌린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이곳 크레용작업반, 수채화작업반을 비롯한 공장안의 모든 작업반원들은 새 학년도를 맞는 학생들에게 질좋은 학용품을 보장해줌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총진격의 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비단천생산계획 지표별로 넘쳐 수행

녕변견직공장에서

녕변견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해 첫 전투부터 총진군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가고있다.

이들은 모든 생산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데트론모시천과 다색단, 날염이불등 등 갖가지 질좋은 비단천생산을 늘여 1월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장일군들이 년초부터 조직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자.

제품의 질을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 녕변의 비단천을 인민들이 즐겨찾는 명제품, 명상품이 되게 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뼈에 새기고 직포공, 수리공들을 찾아 현장에 나간 일군들의 열정에 넘친 경제선동의 북소리, 원료, 자재보장대책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가도록 하는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일본새는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온 공장이 승리의 5월을 향하여 기세차게 내달리게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은 비단천이 더 많이 차례지게 하기 위한 투쟁이 뜻깊은 올해의 첫달 전투부터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생산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업적이 자욱자욱 어려있는 공장의 그 어느 직장, 어느 생산단위나 다 그러하지만 4직포직장의 일군들과 직포공들의 생산성과는 자랑할만 하다. 이들은 온 나라가 다 아는 녕변의 비단처녀들답게 시집가는 처녀들에게 질좋은 첫날옷감을 더 많이 보내주어 뜻깊은 당 제7차대회를 맞는 온 나라에 기쁨을 더해주자고 서로서로 약속하며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110%이상 넘쳐 수행하면서 모든 제품을 높은 질적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있다.

비단천생산의 선행부문을 맡은 1준비직장이 새해에 들어와 여전히 앞서나가고있다. 직장의 일군들은 로력관리, 설비관리를 생산정상화를 위한 중요고리로 틀어쥐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감으로써 지난 17일현재 직장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103%로 넘쳐 수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작업반장 구명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작업반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자기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투목표를 높이 세우고 생산계획을 매일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2직포직장을 비롯한 공장안의 모든 생산단위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 만만한 투지와 신심에 넘쳐 달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당세포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결사대, 척후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로작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당세포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강령적문헌이다.

지금 전당의 당세포비서들과 수백만 로동당원들은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나가는데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거점이고 군중속에 뻗어있는 당의 말단신경이며 당정책관철의 척후대입니다.》

당세포는 당정책관철의 직접적인 전투단위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시되면 그것을 대중에게 해설침투하고 그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대책을 세우며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관철해나가는 말단단위가 당세포이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것은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올해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세포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애로와 난관이 겹쌓여있지만 당세포가 튼튼하고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한다면 화를 복으로, 복을 더 큰 복으로 전환시켜나갈수 있다.

당세포들이 당정책관철의 결사대, 척후대가 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투쟁할 때 우리에게는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당세포의 강화발전에 당정책관철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

당세포는 당원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키우는 기본거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현시기 당세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당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우리 당의 진정한 동지, 전우로 준비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당정책결사관철은 사상과 신념으로 한다. 당의 사상과 정책의 진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면 어려운 시련에 부닥칠 때마다 당정책관철에서 우유부단하게 되고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지게 된다. 오직 수령의 사상과 당정책을 뼈와 살로 만들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수령의 사상을 백방으로 옹호하고 그 관철에서도 앞장설수 있다.

당세포는 당원들의 당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이다. 당원은 누구나 할것없이 당세포에 소속되여 조직사상생활을 한다. 그런것만큼 당세포가 우리 당 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5대교양을 강도높이 벌리고 세포안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면 당원들은 당조직사상생활의 용광로속에서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투철한 사회주의신념과 견결한 반제계급의식,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되게 된다. 지난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백두산대국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일수 있은것은 우리 천만군민의 투철한 사상과 신념이 가져온 자랑찬 결실이며 여기에는 그들을 당정책의 열렬한 옹호자, 관철자로 키운 각지 당세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당세포들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속깊이 새긴 사상의 강자,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는 신념의 강자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였기에 온 한해를 대비약, 대혁신으로 들끓게 할수 있었다.

오늘 당 제7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여나가야 할 무거운 임무가 당세포들앞에 나서고있다. 모든 당세포들은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가는 충정의 인간으로 키우고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깔처럼 강직한 참된 혁명가로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당세포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갈 때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수 있다.

당세포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심장을 혁명열, 투쟁열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는 송풍기이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이 분출될 때 그 어떤 투쟁목표도 단숨에 점령할수 있다.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불씨가 되여야 할 사명을 지닌것이 바로 당세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원들만이 아니라 광범한 군중이 다 떨쳐나서야 성과적으로 관철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세포는 대중과 늘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들속에서 사업하고 활동한다. 따라서 당세포는 사상전선의 척후대라고 할수 있다. 당세포들이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킨다면 가는 곳마다에서 승리의 포성이 울려퍼지게 된다. 이것은 창조로 들끓고 기적으로 충만된 지난해의 눈부신 성과들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당의 사상과 정책이 구현된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비약하며 전진하는 조국의 기상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상원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최고생산년도보다 수만 t의 세멘트를 증산하여 건설의 대번영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들은 당세포들이 대중의 심장이 당의 사상으로 백박치도록 참신하고 박력있는 화선식선전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린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대중의 정신력을 새로운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당세포의 송풍기적역할에 모든 승리가 담보된다는것을 지난해의 투쟁은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당세포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을 완전성공시킨 과학자들처럼 당에서 과업을 주면 한몸을 내대고 결사전을 벌리는 당원, 아침과 저녁으로 강산이 변하는 조국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기적과 위훈만을 새겨가는 당원이 요구된다. 당에서 바라는 이러한 선봉투사들을 수많이 키워내는 자양분이 되고 정신력발동의 추진력이 되여야 하는것이 당세포이다. 당원들이 힘과 용기가 모자라할 때에는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고 지혜가 모자라할 때에는 묘술과 방법론을 가르쳐주며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을 때에는 신심과 배짱을 안겨주는 당세포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만이 창조되게 된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의 총진군의 성패는 중요하게 당세포들의 역할에 달려있다. 당세포들이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하여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불러일으키며 한 단위의 혁신이 다른 단위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올해의 전투적과업을 반드시 수행할수 있다. 모든 당세포들이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온 나라에 혁명적기백과 전투적랑만이 차넘치도록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갈 때 최후승리는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당세포는 광범한 군중을 당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기본단위이다.

당세포들은 군중속에 뻗어있는 당의 말단신경이다. 당세포는 군중과 늘 접촉하고 같이 일하며 당의 목소리를 군중에게 알려준다. 대중이 당의 숨결을 느끼고 당의 모습을 보며 당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지게 하는데서 당세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이며 당의 사랑은 당세포를 통하여 대중에게 뜨겁게 가닿게 된다. 우리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구현해나가는 말단단위도 당세포이고 천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인 인민생활문제를 푸는데서 결사대가 되여야 하는것도 당세포이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것도 당세포이다. 당세포비서들이 어머니다운 정겨운 시선과 밝은 인상, 례절바른 언행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업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면 군중은 당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며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세포비서들이 수없이 많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자기보다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골병이 든 사람,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생각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헤아려주며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이악하게 노력하는 당세포비서들을 수많이 찾아볼수 있다. 우리 당이 뿜어주는 인민사랑의 뜨거운 정을 천만대중의 심장에 전달해주는 혈맥이 되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밑거름이 되는 당세포들의 역할에 의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에 운명을 맡기고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창조하며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고있다.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가꾸어나가는 이런 당세포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고있는것이다.

모든 당세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전적로작에 제시된 사상리론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결사대, 척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윤철희

당이 밝혀준 승리의 대강따라 세포등판을 락원으로 전변시키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1돐을 맞으며

당의 호소에 창조와 변혁으로 화답한 자랑찬 한해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이 완전성공한 충격적인 사변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땅을 더욱 세차게 진감시키고있는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발표 1돐을 맞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자들의 가슴은 벅찬 흥분과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수령이 손수 인민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축산기지건설방향과 방도를 그렇듯 세심하게 밝힌 불멸의 대강을 발표한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었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이 어려있고 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는 귀중한 조국땅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해 사랑과 정이 넘쳐나는 불멸의 대강을 발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토지개량과 좋은 품종의 먹이풀을 심고 잘 가꾸기 위한 방도,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의 건축물건설방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는 불멸의 로작은 진정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며 우리 식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강령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참된 전우, 동지가 되여 그이의 숭고한 애국심과 인민관을 뼈에 새기고 불멸의 대강을 받드는 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

한해전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이처럼 필승의 신심에 넘쳐 자기들의 심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굳건히 이어놓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조선인민군 강신득소속부대와 인민보안부려단의 군인건설자들 그리고 성, 중앙기관돌격대와 각 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세포등판을 뒤흔들며 48만여t의 유기질비료를 비롯한 많은 토양개량제를 마련하여 세포등판을 기름지게 걸구었다. 또한 여러가지 성장촉진제와 농약으로 먹이풀의 생육상태를 부단히 개선하고 병충해를 막으며 풀판 곳곳에 파놓은 우물을 리용하여 가물을 극복하면서 풀판비배관리를 알뜰히 하였다.

결과 인민봉사총국, 대성지도국, 조선태양총회사 그리고 함경남도, 라선시를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돌격대와 도려단들에서 정보당 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세포등판에서 지난해에 전해보다 10배이상의 먹이풀을 생산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어 21세기 본보기축산기지건축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상건설에서 혁신이 창조되였다.

지난해의 건축공사는 완공해야 할 대상이 많고 건설지역도 넓어진데 따라 여러가지 조건이 더욱 불리한 속에서 진행되였다.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당정책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기초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갔다.

국토환경보호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돌격대와 각 도려단들에서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기능공문제를 해결하고 시공의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종전보다 건축물완공수를 훨씬 늘이게 되였다.

인민보안부와 철도성, 황해북도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운영하는 보온부재, 세멘트생산기지와 같은 자력갱생기지들은 자재해결에 드는 원가를 줄이며 대상건설을 다그치게 하는데서 큰 은을 내였다. 황해남도려단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로에서 초무연탄을 리용하여 지난해에만 해도 100여만장의 벽돌을 생산해냈다.

이처럼 자강력이 힘있게 발휘되는 속에 축산학연구소를 비롯하여 1400여동의 건축물들이 훌륭히 완공되게 되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운영과 관련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내각과 농업성 그리고 각 도의 일군들은 축산기지가 건설되면 인차 은을 내서 인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도록 우량품종의 양을 비롯한 많은 풀먹는 집짐승자를 마련하여 세포등판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축산기지의 종축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쌓을수 있게 하였다.

세포지구 축산경리위원회 일군들은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집짐승들의 사양관리를 잘하여 그 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세포군 대곡목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은정복합균과 같은 발효먹이첨가제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집짐승의 영양관리를 잘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리하여 모든 집짐승종자들이 다 새끼낳이를 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새끼밴 어미집짐승에 대한 사양관리와 낳은 새끼를 잘 키우는 사업을 기술적요구대로 함으로써 축산경리위원회적으로 지난해 소, 양, 염소의 새끼낳이계획을 원만히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지난해 풀먹는 집짐승이 그전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였다.

세포등판에 주렁진 과학기술의 열매는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은 풍력양수기, 풍차회전속도자동조종장치, 식물성부착제, 소형뜨락또르용종합분무기, 먹이작물종자피복방법, 염소인공수정률을 높이기 위한 구부림형수정기구 등을 연구도입하였다.

자강력이 제일이며 국산화만이 살길이라는 관점에서 제힘으로 만든것은 생물활성물질복합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식물성장촉진제만이 아니다. 건설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세포등판에서 리용하기 편리한 소형뜨락또르용먹이풀수확기를 만들었으며 세포등판의 바람분포특성과 여러가지 나무의 생물학적특성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바람막이숲면적을 줄이고 풀판면적을 더 늘이였다. 세포등판에서는 어렵다던 먹이풀씨를 채종하는 방법도 연구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세포지구에 《애국풀》을 널리 퍼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뿌리가름과 줄기마디삽목, 아지가름 등 지대적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겨울철조건에서 모를 증식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풍력양수기의 계단식설치와 우에서 물이 떨어질 때의 힘으로 돌리는 뽐프를 만들어 높은 지대에 있는 살림집과 집짐승우리, 풀판에 자연에네르기로 물을 끌어올릴수 있는 길을 개척하였다.

여러대의 풍력발전기설치, 방대한 지역에서 풀판비배관리, 집짐승사양관리, 영농공정수행을 과학화하며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람을 개발, 종합생산지령실과 축산학연구소를 비롯한 중요단위들사이의 콤퓨터망을 형성하고 통합생산관리체계운영시험성과적으로 진행…

이 모든 과학기술적성과들은 축산기지건설과 기지운영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세포등판이 천지개벽되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에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가운데 온 한해동안 창조와 변혁의 력사가 기록된 세포등판이다.

자랑찬 이 현실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대강을 받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것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등판에 좋은 품종의 풀씨를 심고 풀판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있는 오늘도 세포등판에서는 《애국풀》 모가 계속 증식되고있다.

《애국풀》을 널리 퍼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세포등판에 건설된 태양열온실에 이런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여기에는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

사실 겨울철은 《애국풀》 종자 즉 뿌리와 줄기마디를 보관하는 계절이다.

하지만 이들은 당의 뜻을 뼈에 새겨안고 집체적지혜를 합쳐가면서 겨울철에도 모를 증식시키는 방법을 찾아 도입하였다.

처음에 이들은 뿌리가름과 줄기마디삽목에 의한 방법으로 종자를 심고 비배관리에 품을 들였다. 그때 집짐승배설물에 의한 메탄가스생산과정에 나온 찌꺼기와 발효액을 리용하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영양원소가 많고 병원성균이 없다. 식물이 쉽게 흡수할수 있어 일반유기질비료보다 그 효과가 몇배로 컸다.

겨울철에도 늘어나는 《애국풀》 모

때문에 찌끼는 종자를 심기전에 밑비료로 리용하고 발효액은 포기마다 일정한 주기로 주면서 여러가지 성장촉진제를 비배관리에 적극 리용하였다. 결과 《애국풀》의 키가 하루평균 3~4㎝정도 자랐으며 특히 아지를 잘 쳤다.

그들은 이런 조건에 맞게 아지가름에 의한 모증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먼저 《애국풀》 포기마다 북주기를 하여 흙속에 묻힌 아지에서 뿌리가 빨리 생겨나게 하였다. 뿌리가 생긴 아지를 원대에서 갈라 온실안에 설치한 덕대에서 자래웠다. 이렇게 하여 처음 종자를 심은 때로부터 70여일만에 25평의 종자모판에서 수백평에 심을수 있는 모를 증식시켰다.

이곳 돌격대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방법으로 봄철까지 거의 한정보에 심을수 있는 모를 증식시킬수 있는 전망이 보인다고 한다.

한겨울에 봄풍치를 펼쳐놓은 이 현실은 무엇을 깨우쳐주고있는가.

그것은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해나갈 때 계절도 앞당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는 철리이다.

먹이풀바다가 더 푸르러지게

인민봉사총국돌격대에서

꿈을 꾸어도 먹이풀바다가 펼쳐진 세포등판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는 꿈을 꾸며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지난해 정보당 먹이풀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인민봉사총국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작발표기념일을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맹세가 모두의 가슴속에 더욱더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의 토양분석을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소석회와 탄재도 내고 흙보산비료 같은 유기질비료를 많이 쳐서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지난해의 토지개량실태를 료해하면 파정에 한가지 사실을 중시하였다. 이미전에 측정한 자료에 기초하여 산성화가 심했던 어느 한 포전에 소석회를 정보당 10t기준으로 내고 먹이풀을 심었었다. 그런데 가을에 가보니 기대했던것보다 먹이풀수확량이 적었다. 그것이 잘 리해되지 않아 토양분석을 다시 하였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pH가 이미 알고있는것과 차이가 났다.

따져보니 먹이풀수확량이 적은 원인이 있었다. 지난해 겨울에 돌격대에서는 눈이 쌓인 풀판에 소석회를 쳤다. 눈석이때 소석회가 그 물과 함께 땅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풀판이 비탈지다보니 봄에 언땅이 풀리기 전에 눈이 먼저 녹으면서 그우에 있던 소석회가 적지 않게 흘러내렸던것이다.

이런 경우를 과학적으로 타산하지 못한 결과 토지개량이 제대로 안되고 정보당 먹이풀수확고도 더 높일수 없었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이 찾은 교훈은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로작에서 세포지구의 토지개량과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이 전투적과업을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올해에는 토양특성에 따라 소석회를 비롯한 각종 토양개량제를 포전에 내는 시기와 방법을 개선하자.

먹이풀바다가 더욱 푸르러지게 할 결의를 안고 분발해나선 이들은 지난해 포전별 정보당 먹이풀수확고를 놓고 토양특성을 다시금 세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포전별 pH, 부식질함량에 맞게 알맞는 량의 소석회와 닭배설물을 물에 풀어 봄철에 골을 따라 땅이 푹 젖도록 주기로 하였다.

그것은 포전이 비탈진 조건에서 물에 섞어주면 비가 와도 토양개량제가 씻겨내려가지 않고 땅속에 스며들어 토지개량을 질적으로 하면서도 뿌리활성을 높여주어 겨울을 난 먹이풀의 생육이 인차 왕성해지게 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때 그들은 물주기를 기계적방법으로 하여 봄철에 여러가지 작업공정이 겹치는 때에 로력의 긴장성을 풀수 있는 방도도 찾아 실천에 옮기였다.

또한 지력이 낮은 포전에 부식토와 질소, 린, 카리, 규소를 비롯한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을 구색이 맞게 내기 위한 작전을 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먹이풀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서 《애국풀》 재배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 준비사업을 힘있게 다그쳤다.

세포등판에 먹이풀바다가 더 푸르러지게 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해 축산업발전의 대백과전서적인 로작을 발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려는 이들의 맹세는 기어이 실천될것이다.

먼 후날에도 자랑할 멋쟁이건축물로

인민보안부려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에 일떠세우는 모든 대상들을 용도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쓸모가 있으면서도 자연풍치와 잘 어울리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여야 합니다.》

드넓은 풀판을 휘감는 방목울타리들과 그사이로 뻗은 번듯한 새 도로들, 인공호수를 방불케 하는 큼직한 저류지들, 그 량옆으로 민족적형식의 현대적인 건축미를 자랑하며 즐비하게 늘어선 희한한 살림집과 축산기지들, 바다처럼 펼쳐진 풀판우에 등대마냥 서있는 풍력양수기들…

인민보안부려단에서 지난 시기 완공한 150여동의 이런 멋쟁이건축물과 건설대상들을 돌아보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감탄한다.

여기는 축산기지가 아니라 산간지대의 도시같다고.

세포등판의 천지개벽의 새 력사를 자랑하는 이 하나하나의 건축물마다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라는 정신이 맥박치고있다.

려단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세포지구의 건축물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과업을 자강력으로 끝까지 관철할 결의밑에 지금은 세포군 성산리소재지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개건공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려단지휘관들은 비상한 각오로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이 개건공사를 완공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조건은 더없이 불리하였다. 방대한 공사량을 놓고볼 때 뜻깊은 당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결코 기일이 많다고 볼수 없다. 제기일에 대상건설을 끝내자면 겨울에도 공사를 다그쳐야 하였다.

그러자면 현장에 대한 보온대책을 잘 세우는것이 급선무였다.

려단의 전투장은 해발고가 수백m나 되는 곳에 있어 주변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바람피해가 심하고 온도가 낮다.

지휘관들은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 힘과 기술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건설의 질을 보장하며 공사를 내밀기 위해 대상별에 따라 보온대책을 세울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 특히 덩지큰 문화회관건설현장의 보온대책을 잘 세우는데 깊은 주의를 돌렸다.

려단에서는 아직까지 길이와 높이가 이처럼 큰 건물에 보온대책을 세우고 공사를 해본적이 없었다.

방도가 없겠는가. 이때 지휘관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면 못해낼 일이란 없다는 신념을 안고 토론을 거듭한 끝에 건물외부에 통채로 비닐박막을 씌워 찬바람을 막는 방법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박막은 해빛을 잘 통과시키므로 종전의 바람막이바자처럼 가리웠다 벗겼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빛에 의해 더운 공기흐름이 형성될수 있게 벽체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박막을 씌우도록 하였다. 층막에는 벼겨를 두툼히 깔아 웃바람을 막을수 있게 하였다. 내부에는 난로를 곳곳에 설치하여 온도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물론 이렇게 한다는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였다. 하지만 이들은 멋쟁이건축물을 일떠세우기 위해 불가능도 반드시 가능으로 전환시킬 결심을 하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해당한 보온대책을 세웠다.

결과 커다란 비닐집을 련상시키는 건물안에서는 시공의 질을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면서 문화회관내부공사를 쭉쭉 내밀수 있게 되였다.

보온부재생산에서도 자강력이 힘있게 발휘되였다.

함경남도인민보안국대대앞에 벼겨재를 기본원료로 하는 보온부재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할 과업이 나섰을 때였다.

걸린 문제는 건조로능력이 작은것이였다. 이전에는 건물안에 설치한 로에서 보온부재를 건조시켰다. 그런 건물을 또 짓고 로를 설치하자면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이 요구되였다.

김도호, 유경철동무들을 비롯한 대대지휘관들은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우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이들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종전의 로보다 능력이 몇배나 큰 온실식야외건조장을 꾸렸다. 그안에는 구들을 놓고 불을 땔수 있게 하였다.

이런 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발동발전기로 교반기를 가동시켜 만든 젖은 보온부재덩어리들을 여기에 주런이 놓은 다음 내부온도를 18℃이상 보장하였다. 며칠이 지나 보온부재덩어리들이 톱으로 켤수 있을 정도로 굳어졌다. 성공이였다.

이 기지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끝없이 울려나왔다. 그 나날 벼겨재를 모아들이고 톱밥을 비롯한 각종 땔감을 마련하느라 힘이 들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생각으로 충정의 마음을 가다듬으며 맡은 과업을 단숨에 해제꼈다.

려단지휘부에서는 대대들에서 대기온도가 높을 때에는 배수로굴착, 도로건설을 비롯한 외부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립체전의 방법으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하였다.

자강의 길만이 우리의 활로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오직 이 한길로만 내달린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문화회관은 물론 살림집과 상점, 진료소를 비롯한 10여동의 건물골조공사가 이미 끝나 민족적형식에 현대미를 갖춘 건축물로서의 그 형태를 드러내게 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염소떼가 늘어난다

세포등판에 천지개벽이 일어나 자랑거리가 많아진다.

얼마전 **세포군 후평축산농장**에서 한마리의 어미염소가 한배에 4마리의 새끼를 낳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어미염소는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기르던 품종이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염소는 한해에 평균 1.5~1.7마리의 새끼낳이를 하는데 한배에 4마리를 낳는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낳은 새끼들이 어미가 되면 한배에 2~3마리의 새끼낳이를 하는 확률이 높다고 하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닌가.

농장에서의 이 특이한 현상은 우연히 생겨난것이 아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로작에서 밝혀주신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해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지난해 농장에서는 축산물생산에서 앞자리를 차지할수 있었다. 이들은 올해에도 염소마리수를 더 늘이기 위해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염소의 새끼낳이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면 풀먹는 기간이 길어져 증체률도 높아지게 된다.

이 사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세포등판에 풀먹는 집짐승떼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희한한 현실로 펼쳐가는 그 위훈 영원히 빛나리

과학기술전당에 어린이꿈관이 있다

겨울철방학기간 쑥섬을 즐겨찾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성공의 자욱도 요람에 깃들던 어린시절의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이들의 꿈에는 앞날에 대한 소중한 희망과 기대가 담겨진다. 그 희망이 나아가서 삶의 목표가 되고 의지가 되여 마침내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아득한 령마루로 오를수 있는것이 아닌가.

얼마전 우리는 겨울철방학을 맞은 학생들로 흥성이는 과학기술전당의 어린이꿈관을 찾았다.

최첨단의 연구성과들과 방대한 자료들이 집대성되여있는 배움의 전당에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꿈관이 꾸려진 사실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과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안아볼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대원수님들의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정히 받들어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하며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어야 합니다.》

아동열람실, 과학활동무대, 지능계발교실, 과학의 동산구역, 지혜의 샘구역, 자연탐험구역 등으로 이루어진 어린이꿈관에는 50여점의 조작형전시물들과 580여종의 수많은 아동도서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우리는 과학의 동산으로 첫걸음을 내짚었다.

여기서 사물현상의 리치와 원리들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학생소년들의 눈빛은 마치도 미지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과학자, 연구사들인양 자못 진중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연탐험의 길에 오른 학생소년들의 모습은 원시림속을 헤쳐나가는 탐험가들의 모습을 방불케 하였고 여러 구역에 전시된 모의유희기구들을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학생소년들은 마치도 자신들이 직접 추격기비행사, 체육명수, 능숙한 운전사가 된듯싶었다.

학생소년들이 저저마다 오르고싶어하는 달나라탐험선에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와 달의 표면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자료들, 대기권을 벗어나는 과정과 달에서의 시료채취과정 등 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주는 자료들이 동영상화되여있어 우주의 정복자가 될 꿈을 간직하고 있는 학생소년들의 활무대로 되고있었다.

꿈을 속삭이는 소리는 아담하게 꾸려진 아동열람실에서도 울려나오고있었다.

여기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비롯하여 조국의 력사와 지리를 보여주는 여러가지 그림책들과 어린이지능계발에 도움을 주는 도서들, 옛이야기와 외국동화그림책들이 서재들마다에 꽉 들어차있었다. 뿐만아니라 《소년장수》를 비롯한 만화영화들과 아동편집물들이 들어있는 학생소년들과 어린이들속에서 인기가 높은 손접촉식콤퓨터들도 있었다.

창밖에서는 한겨울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여도 배움의 열기, 지식습득의 열망으로 후더운 과학기술전당의 어린이꿈관!

우리의 눈앞에 잊지 못할 화폭이 숭엄히 안겨온다.

지난해 양력설날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어린이지능계발에 도움을 주는 지능교육도서들을 거듭 찾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온 나라 아이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동이로 키우시는 우리 원수님의 리상과 포부, 그것은 그들을 잘 먹이고 곱게 입히고 즐겁게 뛰여놀게 하는것만이 아니였다.

최첨단문명에로 돌진하는 오늘의 시대에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창조적인 두뇌와 인재의 싹을 틔워주고 가꿔주어야 그들이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자라날수 있기에 우리 원수님께서는 최첨단의 상징이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배움의 전당인 과학기술전당에 동심의 세계, 어린이들의 꿈의 세계를 펼쳐주신것이 아닌가.

자애로운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을 젖줄기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꿈관은 말그대로 전민학습의 대전당속에 솟아난 아이들의 궁전이였다.

하기에 아이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가슴마다엔 뜨거운 감사의 정이 넘쳐흐른다.

5살 난 딸과 함께 휴식일마다 이 어린이꿈관을 찾아오군 한다는 만경대구역에서 사는 한 녀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동열람실에서 열심히 책을 읽고있는 딸애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저렇듯 행복한 아이들이 또 어데 있을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어 눈물을 금할수가 없었습니다. 어린이꿈관이야말로 어머니들이 그려보던 우리 아이들의 궁전, 우리 나라에만 있을수 있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어찌 어린이꿈관뿐이랴.

우리 소년단원들의 정든 집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각 도에 건설된 육아원과 애육원, 초등학원과 중등학원들…

후대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창조물들을 더듬어볼수록 창창한 미래가 밝아오는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는 확신과 신심이 우리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었다.

어린이꿈관에 넘쳐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그것은 진정 위대한 어버이의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이며 강성조선의 미래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후대사랑의 아름다운 찬가가 아니랴.

아이들의 꿈나라를 가슴에 안고 과학기술전당을 나서는 우리의 심장속에서 이런 웨침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어린이꿈관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영원히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으며 억만금으로써도 만들어낼수 없는 세상제일의 아동궁전이라고.

글 리신향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원예사와도 같이

버팀목

얼마전 평성시 중덕소학교 교원 조용철동무와 학생들은 전국적인 청소년학생들의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으로 왔다.

그들은 그 걸음으로 만수대언덕으로 올랐다.

그날 조용철동무는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수많은 형님, 누나들이 조국의 영예를 떨친 자랑을 안고 이 계단을 올랐다고.

비록 길지 않은 말이지만 학생들에게 큰 여운을 안겨주었다.

전국적인 여러 체육경기들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 비결을 묻는다면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오르고오르던 만수대언덕에 대해 이야기할것이다.

학생들에게 지식이나 재능보다 충정의 마음을 먼저 키워주는 그 진정은 애어린 꽃나무들이 비바람도 이겨내게 하는 버팀목과 같다.

빛

이른아침이다. 방학기간인데도 여느날처럼 교수안을 들고 집을 나서는 한 녀성이 있었다.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 교원 리순영동무였다. 그의 발걸음은 대동강유보도를 따라 쑥섬으로 향해졌다.

그는 이번 겨울방학기간에 교수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롭게 작성할 목표를 내걸었다. 그는 학교적으로는 물론 구역적으로도 손꼽히는 교원이지만 만족을 몰랐다. 밤을 새워가며 여러가지 출판물들을 알심있게 발취하여 교수안에 반영하기도 했고 짬시간을 리용하여 구역안의 도서관들을 찾기도 하였다. 그런 그가 오늘은 과학기술전당으로 드바쁜 걸음을 이어가고있었다.

과학의 령마루를 향해가는 제자들에게 더 밝은 빛을 안겨주려는 그 마음이 교수안의 갈피갈피에 어려있다.

대지

사리원시 은덕소학교 교원 리은실동무는 계병광, 계병산학생들에게 특별한 정을 기울이고있다.

그는 아이들에게 새 체육복도 마련해주었고 앓을 때에는 머칠밤을 새워가며 고려치료도 해주었다. 올해 양력설날에도 영양식품을 안고 아이들의 집을 찾아갔었다. 병광이와 병산이는 부모잃은 아이들이다.

그들을 친자식처럼 맡아안은 훌륭한 어머니와 고마운 선생님의 웅심깊은 사랑이 언제나 아이들을 보살피고있다.

마음속에 상처입은 어린 아이들도 감싸안아 대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것을 의무로 여기는 이런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어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리는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일

력사박물관을 찾아온 사연

얼마전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찾았을 때였다.

수많은 참관자들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두 녀학생의 모습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겨울철방학기간을 리용하여 박물관을 찾아온 대성구역 6월9일룡북고급중학교 한행복학생과 금성거리초급중학교 한축복학생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의 성장에서 가정교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행복, 한축복학생들에게 있어서 겨울철방학의 하루하루는 참으로 바쁘다.

방학숙제와 악기련습도 열심히 해야 하고 강성국가건설전투로 들끓는 일터들에서 진행할 공연준비도 해야 하며 벌써 여러해째 혈육의 정을 나누며 살아오는 특류영예군인 윤정수로인과 송용복로병부부의 집에도 찾아가야 하는것이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앞장서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하나라도 더 찾아하기 위해 시간을 아껴가며 노력하는 이들이 어머니인 김순임녀성과 함께 력사박물관을 찾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몇해전 텔레비죤으로 방영되는 오랜 력사유적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보던 축복이가 수백년전에 건설한 그 건물이 쇠붙이를 전혀 쓰지 않고 순수 나무로 지은것이라는 해설을 듣고는 어머니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다.

우리 집 부엌문도 장마철이면 불어나고 겨울에는 줄어드는데 저렇게 큰 나무건물이 어떻게 수백년동안 끄떡없이 서있는가 하는것이였다.

후날 해당 단위의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김순임녀성은 목조건물의 기둥주위에 소금과 마른 쑥을 다져넣어 얼음과 습기에 의한 피해로부터 건물의 변형을 방지한것을 비롯하여 오랜 력사유적들에 어린 선조들의 재능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그 과정은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고 우리 조국의 력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애착을 더해주었으며 방학때마다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력사박물관을 찾게 하는 계기로 되였던것이다.

깊은 감흥속에 박물관을 돌아보고난 김순임녀성은 우리에게 말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도 참으로 자랑스럽지만 빼앗길번 한 민족의 력사를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살아온 긍지가 더 큽니다. 우리 애들을 로동당시대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된 애국자들로 키우겠습니다.》

김순임녀성의 이 말은 결코 새롭게 다지는 결심이 아니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식들을 조국을 위하여 헌신할줄 아는 애국의 인간들로 키우기 위해 남편과 함께 늘 마음써온 김순임녀성이였다.

부모들의 그 진정을 가슴에 새기고 두 딸은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함께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과 평양영예군인원주필공장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곳으로 찾아가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도 안겨주고 특색있는 자매공연으로 청년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하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들 자매의 자그마한 소행도 귀중히 여기시여 두차례에 걸쳐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어린시절부터 간직하여야 한다.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그 시절 마음속에 심어지는 애국의 넋이 한생의 영원한 뿌리로 된다는것이 한 어머니의 소박한 생활신조이다.

어머니의 뜨거운 그 마음을 안고 행복이와 축복이는 력사박물관을 찾았던것이다.

본사기자

6년만에 다시 밟은 대지

‖ 봉천군 온천료양소에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13일 봉천군 온천료양소로는 앓은뱅이소년이 아버지의 등에 업혀왔다.

이름은 최격식, 나이는 13살, 사는 곳은 토산군 양사리…

소년의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아들은 7살때 동무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무릎타박을 받았는데 그 후과로 서지도 걷지도 못하게 되였다는것이다.

양사리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즉시에 온 료양소에 퍼졌다.

자식에게는 부모만 한 사랑이 없다지만 환자의 아버지 못지않게 어린 격식이의 앞날을 두고 제 자식일인듯 가슴아파하고 안타까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윤덕란, 조경흔, 조문협동무를 비롯한 료양소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 료양생들이였다.

그렇게도 축구에 취미가 있었다던 소년, 한창 뛰여놀아야 할 그 나이에 조롱에 갇힌 새처럼 온종일 방안에 있자니 장난세찬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서러웠을가.

더우기 온 나라 소년단원들의 눈길이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행사장으로 쏠리고있던 그 나날에는 부모들 몰래 눈물인들 얼마나 흘렸을가 하는 생각에 소장은 물론 료양소의료일군들의 눈가는 축축히 젖어들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온 나라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신 그 부름속에는 바로 격식이도 있지 않았던가.

그동안 안가본 병원이 없었다며 마지막으로 한가닥 희망을 안고 200리가 넘는 먼길을 찾아왔다는 아버지의 심정을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러나 료양소의료일군들은 환자에게 선듯 손을 댈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경우의 환자가 처음이였다. 척추는 심히 변형되였고 하반신에도 근위축증이 온데다가 두개의 관절부위가 탈구되여 여러해동안 강직되여있었다. 환자의 나이도 어리고 영양상태도 나빴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던것이다.

이럴 때 의료일군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료양소에서 치료를 받고있던 연안군에서 온 영예군인이였다.

《인생의 싹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한생을 보낼 격식이가 왜 남이겠습니까. 내 동생같아서 잠이 오지 않아 왔습니다. 소장선생님은 보건부문에 오래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료양생들은 료양소의료일군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소년을 치료하는데 우리 료양생들도 힘을 합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귀한 보약재들까지 아낌없이 내놓는것이였다.

당의 온정속에 의학대학을 졸업한 윤덕란동무로서는 잠시나마 주춤했던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저런 사람과 정이면 못 고칠 병이 무엇이랴.)

료양소의료일군들은 지체없이 의사협의회를 열고 긴장한 치료전투에 들어갔다.

그날부터 한명의 소년을 위한 식사표가 따로 작성되고 몸상태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대책이 세워졌다.

누구라 할것없이 모두가 의사가 되고 간호원이 되여 진정을 바쳤다.

첫 열흘동안에만도 의사협의회는 8차, 환자가 치료받는 70여일동안 총 24차의 의사협의회 진행…

치료에는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들이 적용되였고 의료일군들은 한가지 치료를 놓고도 많은 생각을 하였다. 온천치료와 함께 수기치료를 배합하다나니 의료일군들의 온몸은 매일과 같이 땀으로 젖군 하였으며 어떤 날에는 힘이 진하여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다.

강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탈구된 다리를 제자리에 맞추는 등 한 소년을 위해 이들이 기울인 정성은 얼마나 가슴뜨거운가.

그 나날에는 허리가 좀 펴이면 겨우 맞추어놓았던 다리가 탈구되고 탈구되였던 다리를 맞추어놓으면 견인치료를 하기가 곤난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애로가 앞을 막을 때도 있었다.

김성란, 조문협,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아직까지 해본적이 없는 새로운 치료방법들을 연구도입하면서 치료성과들을 확대해나갔다.

그럴수록 의료일군들은 자기들이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지 않았다. 짬시간마다 지난 시기의 치료경험들을 교환하면서 보다 과학적인 치료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그런 속에 기적은 일어나고야 말았다.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다고 하던 그 소년은 열흘이 지나서는 일어서게 되였고 20여일만에는 지팽이에 의지하여 걷기 시작하였으며 한달이 지나서부터는 지팽이없이 걸을수 있게 된것은 물론 두달후에는 층계도 오르내리게 되였다.

소년이 걷기련습을 할 때면 온 료양소의료일군들과 료양생들이 떨쳐나서 《하나, 둘…》 하고 소리치며 힘과 고무를 주군 하였다. 료양소에서는 매일과 같이 의료일군들의 수고와 회복되여가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로 되군 하였다.

이것은 정녕 사람중심의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였다.

리영철, 김성란, 박미향동무를 비롯한 료양소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기울인 친혈육의 정도 뜨겁지만 어린 소년을 위해 성의를 다한 료양생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가.

하기에 환자가 퇴원하던 날 소년의 아버지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아들이 두번 다시 태여났다고,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하면서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6년만에 대지를 밟고 일어선 소년, 그와 더불어 꽃펴난 이야기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가 활짝 꽃피는 따뜻한 이 땅에 피여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다.

본사기자 홍성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축복받은 꽃송이, 시들어가는 꽃망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입니다.》

얼마전 우리가 현대적으로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고 궁전을 나설 때였다. 우리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궁전에서 아이들의 행복에 넘친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으로 젖어들었다.

나날이 커만 가는 저 행복의 웃음소리는 어떻게 마련되고있는것인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느라니 불현듯 우리의 머리속에는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았을 때 직장장 김옥선동무가 들려주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공장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우리가 어려운 난관을 헤치며 혁명을 하는것도 조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이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오늘은 비록 힘들어도 밝고 창창한 래일을 락관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정상화이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콩우유를 비롯한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그 사랑, 그 은정은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 키우는것만큼 그들의 건강과 발육에 좋은 식료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수도에 어린이식료품공장을 건설할것을 발기하시고 몸소 그 터전도 잡아주시며 첫 콩우유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너무도 기쁘시여 송수화기를 드신채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흥에 겨워 부르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그대로였고 수령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우리 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일곱해가 되던 그날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수령님께 삼가 인사를 드리시고 그 걸음으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그대로였다.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조국의 방방곡곡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퍼지지 않았던가. 평양육아원, 애육원, 옥류아동병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강산은 따뜻하고 이 나라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영원한 메아리로 울려퍼지는것이다.

하기에 몽골의 한 인사는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씩씩하게 자라고있다, 자애로운 령도자의 깊은 관심과 옳바른 교육정책,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속에 자라나는 조선의 어린이들이 정말 부럽다,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격찬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사회는 어떠한가.

미국은 쩍하면 자기 나라는 아이들의 천당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운다. 그것이 사실인가.

언제인가 미국의 한 통신이 전국적인 어린이학대실태를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난 몇해동안 미국에서 근 800명의 어린이들이 맞아죽었다고 한다.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대다수가 젖먹이이거나 겨우 첫걸음마를 뗀 아이들이였다.

아직은 엄마얼굴이나 겨우 가려볼 철부지들이 세상에 눈을 뜨기 바쁘게 사회와 가정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강요당해야 하는 현실은 미국땅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례사로운 일처럼 되고있다.

국가와 사회, 부모들의 보호는 고사하고 어린이들의 생존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지옥같은 사회가 바로 미국이다. 세상을 잘못 만난 탓에 눈물과 설음, 죽음과 공포로 가득찬 유년시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는 불우한 인생들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차라리 이 세상에 태여나지 않았더라면…

남조선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추운 겨울에 발가벗겨 오래동안 바깥에서 벌을 세우거나 회초리로 아이들을 때리고 두살짜리 아이가 운다고 입에 손수건을 물리고 방에 가두는것과 같은 사건이 로골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어린이집》에서의 학대행위는 얼마나 사람들의 치를 떨게 하는것인가.

얼마전에도 남조선의 한 언론은 남도 아닌 부모가 자식의 시체를 랭동실에 숨겨놓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반에 숨어있는 병폐중의 하나라고 개탄하였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풍조가 만연되고있는 이런 사회에 어찌 밝은 앞날이 있을수 있겠는가.

그렇다.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 스스럼없이 노래하며 따사로운 태양의 품속에서 복을 누리며 부럼없이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에 강성조선으로 무궁번영할 우리 조국의 밝고 창창한 미래가 비껴있는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현경철

단상 묶음 — 피의 복수를 부르는 력사의 땅

신천의 낫

신천박물관에는 수십년세월이 흘렀어도 녹 한점 쓸지 않은 한자루의 낫이 있다.

흐르는 세월은 흔히 모든 아픔을 잊게 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는 이 땅에 서린 원한을 한자루의 낫이 날날이 말해주고있다.

낫은 놈들에게 무참히 학살된 당시 신천군 남부면 농민동맹위원장이였던 황봉주가 사용하던것이였다. 이 낫으로 그는 주인된 기쁨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분여받은 땅에서 농사지은 벼이삭을 손목이 시큰하도록 베였으리라, 언제나 행복만을 거두어들이고싶어 손에서 낫을 놓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승냥이들은 그가 제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렇게 거두어들인 낟알로 전선원호에서 모범을 보였다고 남부면당방공호에 가두어넣고 수많은 인민들과 함께 불태워죽였다.

주인과 함께 땅에 묻혔을 낫,

어찌하여 그것은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도 금방 벼가을을 위하여 갈아놓은것처럼 녹 한점없이 서슬푸르게 날이 서있는것인가.

더 거두지 못한 낟알, 더 누리지 못한 행복한 나날들이 그리워서인가.

아니다. 그 낫으로 승냥이들의 목을 베지 못한 원한이 서리여 녹 한점없이 서슬푸른 날을 번뜩이고있는것이리라.

신천을 찾는 사람들에게 쇠붙이도 그냥 놔두면 녹쓸기마련인것처럼 잠시나마 신천을 잊는다면 복수자의 계급의식이 무디여지고 녹쓸게 된다는 진리를 말없이 새겨주는것이리라.

복수자들이여,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벼려진 낫으로 원쑤들의 목을 베라.

기둥

얼마전 우리는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신천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비분강개한 마음으로 교양마당에 들어서던 우리는 박물관을 떠받들고있는 기둥들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철창을 형상한 기둥사이로 쇠고랑이 보였고 금시 피비린내가 풍기는것 같았다.

철창을 사이에 둔 밖에서는 행복에 겨운 날과 달들이 흐르고있건만 안에서는 지금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령혼들의 피맺힌 원한의 절규가 들려온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단순히 건물을 떠받들고있는 기둥으로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저 하늘가에 다시는 울려선 안될 피의 절규, 이 땅에 다시는 흘러선 안될 피의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거든 계급투쟁의 신념을 기둥마냥 억세게 심장에 박으라고 말해주고있는듯싶었다.

신천땅에 피의 지층을 이룬 수많은 애국자들의 선혈을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원쑤에 대해 가졌던 《설마》라는 생각이 몰아온 비참한 죽음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계급적원쑤들과는 피를 물고서라도 싸워이겨야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새겨주는 저 기둥을 가슴에 안고간 수많은 복수자들이 계급진지의 사상적보루를 억세게 떠받드는 기둥으로 자라고있는것이다.

신천의 기둥은 우리에게 말한다.

계급투쟁의 기둥이 한순간이라도 흔들린다면 신천땅의 피의 교훈이 되풀이된다고.

신철

철천지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신천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민족공동의 합의들은 누구도 거역할수 없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고있는 우리 겨레의 앞길에 불멸의 기치가 휘날리고있다. 자주통일의 근본원칙, 과업,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이다.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이 하루빨리 리행되여 통일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기를 바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의 현실과 겨레의 지향, 시대적요구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력사적인 올해신년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에 따라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에 토대하여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되여있고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을 통해 내외에 엄숙히 선포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우리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해오는 력사적과정에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민족자체의 힘으로 그리고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평화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것을 진리로 새겨안았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불타는 조국애와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 탁월한 령도력으로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조국통일운동의 현실적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7.4공동성명을 통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으로 빛내여주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의지가 맥박치는 조국통일의 절대적지침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이 있어 우리 민족은 지난 세기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를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의 시대로, 민족대단결위업의 전성기로 빛나게 장식할수 있었다.

주체89(2000)년 6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북남수뇌상봉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된 6.15공동선언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뜻과 의지에 의해 마련된 새 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6.15공동선언을 적극 실천하여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어이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10.4선언이 채택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북남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사변들로 가득찬 활력있는 관계로 전환시킨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선언들의 근본핵인 우리 민족끼리는 나라의 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이다.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3대원칙과 그 구현인 북남선언들에 철저히 의거할 때만이 외세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그 어떤 정세하에서도 변함없이 고수리행해야 할 불변의 자주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다. 복잡다단한 북남관계의 력사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에 충실할 때 북과 남이 서로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갈수 있지만 그것을 거역하고 유린하면 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위험만 고조된다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현 북남관계의 파국적사태도 남조선당국이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부정하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기승을 부린 필연적결과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북남합의들의 《존중》을 운운하며 그것이 없이 북남사이의 《신뢰》를 론할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대결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 남조선집권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데서 북남선언들의 리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삭제하고 그 무슨 《북변화유도》라는것을 쪼아박았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무시하고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 공화국을 해칠 흉악한 계책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실제로 남조선보수패당은 저들이 《대북정책》으로 내든 《신뢰프로세스》가 동족의 《체제변화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들어대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체계적으로 격화시켰다. 끌려가지도 않으며 양보하지도 않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원칙고수론》도 6.15통일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한사코 부정적으로 대하면서 북남관계를 완전한 대결관으로 만들려는 반통일적흉심의 발로이다. 남조선당국이 《체제와 가치를 양보하는 통일》은 《결코 있을수 없다.》고 뇌까리며 체제대결에 악랄하게 매달린것도, 《북의 핵, 〈인권〉문제해결의 방도는 통일》이라고 고아대면서 《통일외교》놀음에 기승을 부린것도, 미국과 함께 북침을 가상한 각종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들을 광란적으로 감행한것도 결국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으로서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반민족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합의들의 존중, 리행이 아니라 외세와의 공조, 북침전쟁도발, 북남대결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는 현 남조선당국의 무분별한 망동은 지금 가뜩이나 악화된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거침없이 몰아가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합의들에 배치되게 행동한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수 없고 빚어질것은 전쟁의 재난뿐이라는것을 교훈으로 새겨주고있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떠나 긴장완화와 평화, 북남관계개선은 있을수 없다. 누구도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거역해서는 안된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감히 반대하는자들은 매국노이며 민족반역자, 통일의 원쑤들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나라의 통일이 이룩되는 그날까지 철저히 고수리행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해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을 드팀없이 관철하여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로 부르고있다.

신년사에 밝혀진대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조국통일3대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합의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를 리행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선언들에 배치되게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조선반도에 북침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남조선의 반역패당을 추호도 용서치 말고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옹호,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올해를 기어이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할것이다.

심 철 영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의

도꾜에서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과업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 회의가 20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과 부회장들, 일본 각지의 평통협 일군들, 총련중앙단체, 사업체일군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리동제회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진군에 조국의 군대와 인민들이 총궐기해나섰다고 말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새해축전에 담겨진 숭고한 사상과 의도대로 뜻깊은 올해에 총련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기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5월25일서한에 제시된 5대과업의 전면관철에로 떨쳐나서고있다고 그는 밝혔다.

그는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접한 겨레들은 기쁨과 감격, 신심에 넘쳐있고 세계가 경탄하고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올해의 거족적인 투쟁에서 앞장서나가기 위한 평통협의 사업방향과 대책을 토의하게 된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오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최후승리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본당국과 굴욕적인 《합의》를 맺고 식민지통치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겨레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은 남조선당국을 천추에 용납하지 않으며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현시기 조국통일운동의 요구에 맞게 조직의 역할을 높여 조국통일운동을 전기관적, 전동포적운동으로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토론회, 대중강연회를 비롯한 통일행사들을 다양하게 조직하고 동포들과의 련대련합사업을 강화해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남승우부의장이 발언하였다.

회의에서는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반민중적권력을 용서할수 없다, 로동개악 저지하자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무기한 총파업 시작

【평양 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5일 당국의 로동개악지침분쇄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로총 서울본부와 경기, 인천본부소속 로조원들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로동청앞에서 총파업결의집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정부》가 로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량대지침》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가관은 이 지침을 두고 나쁜것이 아니라고 선전하고있는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국이 도대체 민중을 바보로 알고있는가고 성토하였다.

그들은 이번 지침이 나쁜것이 아니라면 왜 《정부》가 집권이후 필사적으로 로동개악을 강행하려고 하였으며 왜 민주로총 로조원들이 강추위를 무릅쓰고 총파업을 하겠는가고 반문하였다.

《정부》가 민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동개악지침을 강행함으로써 저들의 반민중적정체를 스스로 드러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정부》야말로 소수의 자본가만을 철저하게 대변하는 집단에 불과하다고 규탄하였다.

민중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화를 파괴하는 이 무도한 권력에 대해 결코 용서할수 없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그들은 이제 남은것은 투쟁이라고 하면서 로동개악지침을 분쇄하기 위한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2016년을 로동자가 승리하는 해로 만들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로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등의 구호들을 서울지방고용로동청 벽면에 붙이며 항의운동을 계속 벌려나갔다.

이날 민주로총은 1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지역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제히 무기한 총파업돌입을 선포하였다.

누가 《국회》를 란장판으로 만들었는가

4월총선거를 앞둔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가 들고나온 《4대개혁》관련법안들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격화되고있는 속에 여야대결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악재가 터져나왔다. 최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이라는것을 들고나온것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우기는 리유는 이 법이 소수인 야당의 립장만 대변하며 《국회》의 손발을 묶어놓고 각종 법안처리를 가로막고있다는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소를 금치 못하고있다. 한때는 《국회선진화법》을 입이 닳도록 떠들면서 제손으로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는 불장을 다 보았다는 식으로 그것을 뜯어고치려 하기때문이다.

하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것은 《최악의 폭력국회》로 얼룩진 18대 《국회》가 낳은 비극의 산물이다. 당시 《새누리당》의 전신이였던 《한나라당》은 각계층 인민들과 야당세력의 반대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조건을 악용하여 각종 악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키였다.

이것은 여야의 피터지는 싸움을 불러왔다. 당시의 18대 《국회》는 매일과 같이 폭력의 란무장, 《립법전쟁》마당이였다. 회의장의 유리들이 산산조각나는 가운데 메스링선수도 무색케 할 란투극이 벌어지고 누구의 주먹, 어느 패거리의 힘이 더 센가를 겨루는 집단싸움도 벌어졌다. 아예 회의장에 들어갈 때 곤봉을 가지고 들어가는 의원들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함마, 전기톱, 최루탄까지 리용되였는데 이로 하여 부상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애당초 《국회》를 싸움판으로 여겼는지 《전번에 익혀두었던 권투기술을 이번에는 초기부터 써먹었다.》고 자랑하는 자들도 있었다.

물론 이것은 18대 《국회》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다. 인민을 등진 반역정치가 지배하는 썩어빠진 남조선사회에서 해마다 흔하게 볼수 있는 심심치 않은 풍경이다. 하지만 18대 《국회》를 통해 남조선정치의 추악한 면모는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국회》인지 싸움터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란장판을 가리켜 세계언론들은 한결같이 《레스링경기장으로 변한 〈국회〉》, 《싸움판〈국회〉》, 《야만들의 란장판》이라고 조롱하였다.

반인민적악법들의 날치기처리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궁지에 몰린데다 세계의 웃음거리로 된 남조선보수패당은 궁여지책으로 《국회》에서의 몸싸움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처리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2012년 《새누리당》것들의 흉측한 기도를 반영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것이 페여져나오게 되였다. 여야합의를 강조하면서 《국회》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안처리가 가능하다는것이 《국회선진화법》의 기본내용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보수패당은 《선진〈국회〉운영의 길을 열었다.》고 하면서 저들의 치적을 요란히 광고하였다.

하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민심의 지향과 요구는 아랑곳없이 독재통치에 열을 올리는 반역패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둘리 만무하다.

현 남조선집권자의 야망이 비낀 이른바 《개혁》관련법안들이 지난 한해동안 야당의 견제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되자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드디여 본성을 드러냈다. 얼마전 《새누리당》대표는 저들이 꾸며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독설을 퍼부으면서 그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었다. 그전에도 이자는 《국회선진화법》은 《식물〈국회〉를 만든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헐뜯으면서 《국회》의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시켜야 한다고 고아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8일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저들 단독의 《국회》운영위원회라는것을 소집하고 이미 푹 배인 수법대로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을 날치기로 상정시키는 망동을 부렸다. 그 골자는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법안의 본회의 회부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국회》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새누리당》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다.

실컷 부려먹고 생일날 잡아먹는다는 격으로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첨예한 대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손으로 들고나와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을 한사코 개정하려는 기도가 이제는 명백해졌다. 그것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과 야당세력들의 반대규탄으로 《국회》처리가 지연되고있는 현 집권자의 《4대개혁》관련법안들을 강압적으로 통과시켜보자는것이다.

최근 《4대개혁》관련법안들의 처리가 지체되고있는데 약이 오른 남조선집권자가 《국회》를 향해 《식물국회》니, 《동물국회》니 하고 마구 욕설을 퍼붓고있는것도 실상은 《새누리당》것들에게 《국회선진화법개정안》을 빨리 처리하라는 로골적인 압력이다.

하지만 현 보수집권세력의 기도는 야당세력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있다. 야당세력들은 《국회선진화법》개정요구는 각종 법안들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는 《독재회귀적사고》라고 비난하면서 《새누리당》이 계속 고집할 경우 모든 《국회》일정과 법안심사에 참여하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여론들은 《국회선진화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또 한차례의 첨예한 대결극을 펼치게 될것이고 그것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극도의 혼란속에 몰아넣는 촉매제가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현실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외면하고 반역통치에 열을 올리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시정배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한 그 무엇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단평 밥그릇싸움

남조선에서 부지깽이도 돈내, 권력내를 맡아 바삐 뛴다는 선거철이면 《새누리당》은 항상 해괴망측한 구경거리를 만들군 한다.

최근 《새누리당》상층이 당내의 《중진인물》들에게 4월총선거에서 불리한 지역들을 하나씩 맡아 출마해줄것을 요구했는데 그들이 그 요구를 뿌리치고 여봐란듯이 저들이 당선된 지역에서 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것이다. 당상층부의 고민은 내 알바가 아니며 그따위 호소는 개미 방귀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것이다. 하기야 《중진》으로 자처하며 거드름을 피우던자들이 왜 사서 죽을 고생을 하겠는가. 딩굴 자리 보고 씨름판에 나간다는데 병 만났다고 애초에 나떨어질 지역들에 나가겠는가 하는 식이다.

《중진인물》들의 반변에 《새누리당》내부는 란장판이 되고 너도나도 알속이 있는 지역들에 출마하겠다고 욕욕대고있다. 그야말로 망조가 든 반역당이다.

언제인가 《새누리당》에서 당을 상징하는 새 창안품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그 모양을 밥그릇에 비유하면서 《늘 밥그릇싸움을 하는것을 상징》한것이라고 조소를 보냈다. 그 추악한 밥그릇싸움은 지금도 여전하다.

출세와 공명,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더러운 정치간상배들이 득실거리는 《부패정치의 1번지》에서 쏟겨나오는 악취에 사람들은 다시금 코를 싸쥐고있다.

허 영 민

황당한 거짓말로 세계를 기만한 핵범인

요즘 미국의 핵무기현대화책동을 규탄하는 국제여론이 대두하고있다.

오스트리아신문 《크로넨 짜이퉁》은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제창한 오바마행정부의 집권기간 미국의 핵무기고가 부단히 현대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지난해 네바다주에서 《B61-12》로 불리우는 새로운 핵무기개발시험이 진행되였다고 전하였다. 오스트리아의 군축전문가 알렉싼더 크멘트는 핵보유국들이 현대화의 간판밑에 자기들의 핵무기고들을 경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세계안전 특히 유럽사람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조성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의 로이터통신, 프랑스의 AFP통신 등은 미국이 핵무기의 정밀화, 소형화를 추구함으로써 《핵무기없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한 공약을 위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의 끊임없는 핵무기현대화책동으로 인류에 대한 핵위협이 더욱 증대되고있는 오늘의 엄혹한 현실에 립각한 응당한 지탄이다.

세계에 미국만큼 《비핵화》에 대해 넘불처럼 외워대는 나라는 없다. 더우기 현 미행정부는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제창하며 등장하였다. 지금도 사람들은 2009년 4월 오바마가 체스꼬 쁘라하의 군중들앞에서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드는것은 나의 외교정책의 핵심이다, 임기중에 비록 그것이 실현을 보기 어렵다고 해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흰소리를 친것을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인류가 그토록 념원하는 핵무기없는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세치 허끝에 올린 덕으로 집권한지 1년도 못되여 노벨평화상까지 타먹었다.

그러나 오바마집권 7년이라는 기간은 백악관주인이 열심히 외워댄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이라는것이 세계를 기만하기 위한 한갖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확증하였다.

세계를 비핵화하자면 무엇보다도 수많은 핵무기들을 본토와 세계 곳곳에 배비해놓은 미국의 비핵화부터 실현되여야 한다. 미국의 비핵화를 떼여놓고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핵무기없는 세계》건설구상을 내놓은 오바마는 자국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미국의 핵무기고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방전략검토보고서》에 쪼아박도록 하였고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미국이 의연 《안전하고 효과적인 핵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핵무기를 상용무기처럼 모든 전쟁들에서 사용할것을 노리고있는 미국은 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있다. 《B61-12》개발시험을 놓고보아도 이것은 미국이 30년간 1조US$를 들이밀어 추진하는 핵무기현대화계획의 일환이다. 《B61-12》는 지하갱도나 무기고를 타격할수 있으며 목표물에 따라 폭발력도 조절할수 있는 정밀유도핵폭탄이다. 머지않아 유럽에 전개되여있는 미국의 핵무기들이 《B61-12》들로 교체될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스텔스기능을 가진 신형장거리폭격기 《B-3》을 개발하여 강력한 폭격기비행대를 꾸리는 한편 핵미싸일을 탑재할수 있는 잠수함들과 대륙간탄도미싸일을 포함하여 핵무력전반을 현대화하기 위해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이런 미국이 《핵무기없는 세계》건설을 떠드는것이야말로 파렴치성과 량면성의 극치이다.

원래 《비핵세계》구상은 미국의 대외정책과 모순된다. 군비경쟁, 대결정책은 미제의 침략적대외정책, 세계제패전략의 핵이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군비경쟁과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는것을 통하여 침략과 간섭의 구실을 마련하고 지배권을 세계적범위로 확대하려 하고있다. 그 수단이 바로 핵무기이다. 핵무기를 세계지배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미국이 《비핵세계》에 관심이 있을리 만무하다.

미국이 뻔뻔스럽게 《비핵화》타령을 붙여대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여러 핵보유국들을 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절대적인 핵우세로 저들의 지배주의적야욕을 충족시키려는데 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핵무기현대화책동으로 핵전쟁위험성은 날을 따라 더욱 커지고있다. 미국때문에 세계에는 새로운 핵군비경쟁이 일고있다. 최근 로씨야국방상이 올해중으로 5개의 전략로케트련대가 실전배비되며 전략핵무력을 강화할것이라고 언명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오늘 핵전쟁위험이 가장 짙은 곳은 조선반도이다.

미국의 핵전쟁광신자들은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대상명단에 올려놓고 사전경고없이 공격할것이라고 위협해나서고있다. 미제가 해마다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벌리는 여러가지 합동군사연습들은 그 규모와 기간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긴것으로서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들이다.

미국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핵위협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세계최악의 핵범인 미국은 더이상 거짓과 기만으로 인류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핵무기현훈증에 푹 빠져있는 미국이 존재하는 한 세계의 비핵화와 안정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다.

이제라도 오바마는 황당한 거짓말로 따낸 노벨평화상을 스스로 내놓는것이 좋을것이다.

배 금 희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한 노력

나라의 안전을 위한 조치

세네갈정부가 21일 테로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전기구를 내왔다.

기구는 있을수 있는 테로공격에 대처하여 국경지역을 비롯한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전체 인민이 테로위협을 막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테로반대투쟁 강화

케냐아경찰이 20일 말린디에서 반테로작전을 벌렸다.

작전과정에 4명의 테로분자들을 사살하고 수류탄을 비롯한 많은 무기들을 압수하였다고 한다.

같은 날 싱가포르에서도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를 지원하던 27명의 외국인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소형태양열발전소 건설

이란에서 소형태양열발전소가 건설되여 9일 조업하였다.

수도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이 발전소의 발전능력은 250kW이다.

정부가 태양열과 풍력을 비롯하여 재생에네르기자원을 리용한 전력생산에 더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웰남의 화학비료공장

각이한 염도의 물에서 기를수 있는 우량품종 은숭어

외신자료에 의하면 은숭어는 온대 및 열대지역에서 사는 잡식성물고기로서 생활력이 매우 강하다.

은숭어는 짠물로부터 덜 짠물지어 민물에 이르기까지 각이한 염도의 물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수 있으며 식물성알갱이먹이도 좋아하므로 양어에 적합하다.

은숭어가 적응할수 있는 물온도는 3~35℃이며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물고기와 함께 기를수도 있다. 사양관리만 잘하면 첫해에 무게가 300~700g에 달할수 있다.

은숭어는 살이 많고 맛이 좋으며 영양가가 풍부하고 비허와 소화불량, 빈혈 등의 치료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어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61015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